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48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8일

발 의 자 : 황인구, 장인홍, 김정태,
정재웅, 이태성, 김수규,
장상기, 채유미, 최 선,
박순규, 유 용, 안광석,
최기찬, 양민규, 김춘례,
문장길, 이영실, 김경영,
강대호, 최정순, 김혜련,
오중석, 이병도, 신정호,
송명화, 성흠제, 김평남,
권수정, 박상구, 이준형,
김경우, 박기재, 송정빈,
김 경, 김달호, 권순선,
이동현, 김호평, 김화숙,
임종국, 이광호, 이호대
의원(42명)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안이유

- 현재 한반도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또한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북한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남북은 판문점에서 4·12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남북정상이 우호적으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특별공연 등을 지원하며 남북 교류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는 남북 상호 신뢰구축, 화해분위기 조성 및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실현하고, 전쟁 및 단절이 빚은 남북의 이질적 체제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족 화해 및 공동번영 달성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8.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